

슬픔의 이 세상에서는 아무 욕구도 갖지 말고,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산스카르를 신인들의 것처럼 만드십시오.

노래: 누군가 나를 그에게 속하게 만들고서 미소짓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네!

옴 산티. 하나는 미소짓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는 세상의 끝이고, 미소짓는 세상, 즉 행복한 세상을 위한 묘목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합류시대에 있으면서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주의를 온통 그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는 세상, 즉 슬픔의 세상에서는 부나 번영, 지위, 존경이나 존중에 대한 욕구는 아무 것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나 번영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오직 눈물뿐, 즉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에도 성취라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복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창조하고 있는 미소짓는 세상, 즉 끊이지 않는 행복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들의 산스카르들을 그 세계의 산스카르들과 같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신인들의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도 얼굴에 미소를 띤 모습으로, 또 그들의 얼굴에 순수성과 신성함이 깃들여 있게 그림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산스카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산스카르들을 훈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은 자취도 없습니다. 거기엔 눈물이 없으며,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많이 울었고 이제까지 슬픔을 참 많이 받았다, 즉 너희는 슬픔의 세상에서 무수히 여러 번 생을 취해왔다”라고 하십니다. 그 밤이 이제 끝날 것이고 낮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 즉 슬픔의 세대는 이제 끝나고 있고 행복의 세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의 기반은 여기서 놓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가 지금 놓이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여러분은 행복을 얻는 그 일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생은 극히 귀중하다는 것이 기억되는데, 이것이 어떤 생에 대해서 기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번 생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생을 취했지만 최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생은 이번 생이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고귀한 여러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840만 종으로 태어난 뒤에야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생은 지극히 귀중하며 오직 840만 종으로 태어난 후에만 행복한 생을 취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가 무척 행복할 텐데 왜 그토록 많은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행복과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생을 취함으로써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청산해야 합니다. 동물, 새, 나무 등이 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에 각자의 카르마의 계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각으로 압니다. 인간이 최대 84생을 취한다는 것과, 더 나중에 내려오는 영혼일수록 더 적은 수의 생을 가진다는 것도 역시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지각에 이 계좌내역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 즉 행복한 여러 생을 위한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최고로 높은 생으로서 칭송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생에 가장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 생에 무척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신이 와서 우리를 최고로 높게 만들려고 힘을 주시는 때입니다. 이처럼 지금 그에게서 힘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그냥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오셨으니,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그에게서 받는 그의 가르침, 명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의 지시는 여러분의 지각 안에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고 요기가 되어라.” “나를 기억하고, 순수해져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의 지각에 아주 잘 간직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의 지시를 따르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운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변함없이 행복한 세계의 행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요? 이것이 슬픔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상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행복의 세계도 역시 반드시 현실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슬픔만의 세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행복과 슬픔 양쪽이 다 있으며,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행복이 행복의 전부라거나 이것이 천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행복과 슬픔이 지금 존재하는 행복과 슬픔과 같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때의 행복은 행복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행복하던 때 가졌던 행복은 달랐고, 그래서 그것은 행복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에는 어째서 그것이 상상이라고 여겨질까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 지식의 힘을 갖고서, 또 양심을 씀으로써 우리는 슬픔의 세계가 존재하므로 행복의 세계도 역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슬픔이 와도 행복하다고 여기라고 말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까지 일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원한다는 것이 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왜 바라겠습니까?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 다음엔 병에 걸리거나 불시의 죽음이 오는 등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저 행복하다고 여기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행복일 지언정, 현실적인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현실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역시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때가 되면 행복의 그 세계가 다시 한 번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대가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우리의 행동을 고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의 장이기 때문에, 행위를 행하는 땅이어서 어떤 씨를 파종하든 그 사람은 자기가 심거나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심지어 나도 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하십니다. 비록 내가 세계의 전능한 권위자이지만 그렇다고 만일 내가 원한다 해서 하늘을 끌어내리거나 땅을 위로 솟아오르게 할 수는 없다. 신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시체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의 힘은, 그가 죽은 자를 도로 살려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영혼은 몸을 떠나야 하고, 그러한 일은 없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도로 살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겠느냐? 그는 다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의 규율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 이유로 이것에서 힘을 보여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들 5원소는 각기 고유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시대, 은시대, 동시대, 철시대에 따라 이들도 역시 그 자체의 각 단계를 거칩니다. 지진, 홍수, 폭풍 등은 모두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타모프라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모프라단한 단계입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망쳐졌는지에 대해 이 비밀들을 모두 설명하십니다. 그는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왔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개조하는데, 이를 위해서 나는 먼저 인간 영혼들을 모두 개조하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개조된다”라고 하십니다. 세계가 개조되고 나면 그때는 끊이지 않는 행복이 있고 누구에게 슬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슬픔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들은 또 세계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도 역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다. 나는 이 지식으로 충만하다. 나는 이 지식 전체를 다 갖고 있다. 카르마의 잔고가 어떻게 작용하며 모든 이가 등수대로 어떻게 낮아지는지 나는 전체의 지식을 완전히 다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일컬어지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이 사이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의 일부가 될 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클의 바깥에 계신 한 분은 이 지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진 반면 다른 이들은 모두 잊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는 분이다. 나 하나만이 그 힘을 지닌 반면, 다른 모든 이들은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의 힘을 주려고 내가 온다.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고의 영혼, 전능한 권위자,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지식의 대양이라고 찬양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에 대한 이 찬양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며,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했고 또 그것은 나의 의무다. 나는 여기서 매우 고귀한 과제를 행해왔으며 그래서 찬양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인간들이 왜 칭송 받습니까? 간단디에 대해서는 그가 아주 선량한 인간이었으며 아주 높았다고, 고결했다고 일컬어집니다. 고결했다는 것은 그의 키가 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컸던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위대해졌습니다. 그는 선행을 행했고 그래서 모든 이가 그를 기억하고 칭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역사에서 무슨 말을 듣든, 예를 들어 아무개가 이만저만한 선행을 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는 그 말에 따라 칭송됩니다. 신은 대단히 많이 찬양되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틀림없이 뭔가를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단지 저 위에 앉아만 있고 그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의 모든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오셔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들을 드높여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그들을 드높여준 방식이고 그래서 그가 찬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에 대한 찬양과 신의 과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들도 역시 찬양 받아 왔습니다. 구루 나나크 데브, 그리스도, 붓다 등도 모두 그 한 분을 향해 신호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일들이고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는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행위를 선하고 순수하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천국에 대한 권리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쨌든 행위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껏 행해온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너희의 슬픔이 계속 더 늘어온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자 이제는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해를 갖고서 모든 일을 아주 잘 해라. 나의 지시를 따라라. 내 지시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토대로 행복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 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거나 망쳐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창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그 이해를 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앗차.

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베다들, 경전들, 그란트, 푸라나 등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타 요가와 프라야마 등을 참으로 많이 수련합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설명해줍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카르마에 따라 전진해 나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행동을 개조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조해야 할까요? 그가 그것을 설명해줍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학자나 판디트나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매우 깨끗하게 (순수하게) 해야 한다. 그가 앞서서 깨끗함(순수성)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는 순수해질 수 없다. 심지어 신인들을 기억할지라도 다른 누구와 요가를 함으로써는 너희가 순수해질 수 없다. “나에게는 너희의 죄를 없앨 힘이 있다”라고요. 이런 이유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와 연결되지 않고는 너희가 순수해질 수 없다. 전기가 발전소와 연결되어야지, 만일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엔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 힘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와 연결을 가져야 한다. 내가 주된 발전소이니 너희는 그것에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것에 연결되지 못한다면 너희는 힘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만일 힘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의 죄는 없어질 수 없다. 만일 너희의 죄가 없어지지 못한다면 너희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요가를 해야 한다. 나 없이는 너희가 해방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앗차.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굿 모닝 아침인사를 보냅니다. 옴 샐티.

축 복: 야기야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모든 성취의 프라사드(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공양물)를 다 받는, 만능의 봉사자가 되어라.

합류시대에 온갖 봉사를 다 할 기회를 받는 것은 드라마 안에서의 승강기다. 야기야를 위한 온갖 봉사를 다 함으로써 야기야에 봉사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성취의 프라사드를 받고, 장애로부터 자유로이 머문다. 너희는 한 번 봉사하고 그 봉사에 대한 결실을 천 배로 받는다. 미묘하게 또 물리적으로도 ‘랑가르’ (시크교 사원에서 24시간 내내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라. 누구든 충족시키는 것은 아주 큰 봉사다. 환대를 베푸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다.

슬로전: 너희가 자아존중애 안정해 머물면 그때에는 온갖 유형의 예고가 자동적으로 다 끝난다.

*** 옴 샐티 O M S H A N T I ***